

유대인의 옛 틀에서 모든 족속의 새 틀로

-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

이사야1:13-18, 마태복음28:18-20

정윤돈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주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장소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원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판단, 기준, 지식까지도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린다. 맥추절을 성경에서는 칠절칠이라고 말한다. 그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오순절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주일인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다. 맥추감사주일은 바로 성령의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교회의 생일은 7월 첫째 주일로 생각하면 된다. 맥추절은 유대인의 주수하는 절기이다. 과거에는 쌀을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빵을 많이 먹는 것 같다.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여러 가지 의미로 결단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작심삼일이 많다. 아버지와 삼촌은 1월 1일부터 3일 동안 담배를 끊으셨다. 그리고 서는 다시 피신다.(웃음) 삼촌은 그 때 당시에 1년 치 담배 값인 70만원을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하셨다. 그래서 왜 헌금했냐고 물었더니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담배 끊게 해달라고 1년 치 담배 값을 계산해서 헌금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그 후에 또 피셨다. 결국 그 해는 담배 값만 2배로 들었다.(웃음) 우리가 작심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번에 전도집중훈련 강의하러 오신 장로님이 건강보험환리공단에 20년 동안 계시다가 45살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담배가 안 끊어진다는 것이다. “목사님,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 연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기도하고 피라고 했다. 담배 필 때마다 얼마나 좋은가. 한 갑에 12개가 들어있으니까 정시기도가 그만큼 되는 것이다.(웃음) 그렇다고 다시 피라는 것은 아니다.(웃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담배를 피려고 했더니 겨겨워서 못 피겠다고 하더라. 장로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다. 술, 담배에 도사였는데 지금은 도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체질도 바뀐다. 작심으로 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머지 절반은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장로님들은 새롭게 도전하고 개혁해야 한다. 요새 일본에서 여러 가지 제제를 한다고 해서 말이 많다. 과거에 책을 보니까 대기업과 소기업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대기업은 반드시 목표가 있다고 한다. 구멍가게의 1년 매출을 목표로 삼는 것을 봤는가.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대기업은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보다도 실패계획, 위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고 한다. 친구가 삼성에 있었다가 해고당했는데,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획하고 연구도 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삼성핸드폰의 매출이 떨어질 줄을 생각 못했다고 한다. 그 위기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그 무리들이 해고되었다. 대기업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다.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계획하지 않는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 10년도 금방 지나간다. 주님 앞에 설 날도 금방 지나간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분들도 어느 순간 옆에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어느 날 사표 쓰고 안 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수없이 이야기한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내가 여기 없을 날이 있다. 가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을 돌보지만 이 아이가 소자이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누리고 감사하라.’ 내 마음이 바뀌더라. 생각이 행복해졌다. 정말 어느 날 온다. 성가대분들도 어느 날 목소리 안 나올 수 있다. 어느 날 봉사 못 할 수 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발로 예배당에 못 오는 날이 올 수 있다.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삼기를 바란다. 학생들도 힘들다.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보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그 날로 못 돌아간다. 공부를 잘 했든 못했든 최고로 누려라. 어느 날 대학생이 안 될 때가 있다. 어떤 학생이 말한다. ‘내가 대학생 생활이 끝났으니까 열심히 놀자.’ 이것이 아니다. 가장 가치 있게 보내기를 바란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후반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누리는 행복한 후반기가 되기를 축원한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가? 사람들이 자기의 상식, 지식, 옛 틀, 수준, 기준, 표준에 매여있기 때문이다. 옛 틀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믿으려고 집중하다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전통과 습관에 매여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성경 속 예수님이 어디서 언제 오시는지 예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헤롯왕에게 말해주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도 영접하지 못했다. 왜 그랬는가. 전통, 습관, 이전까지 해왔던 것,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었다. 주님의 수준은 저 죄인들, 세리들도 예수님의 체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고 내 수준이 옳다며, 싫고 좋다고 기준을 세운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인데, 기준은 선악과 따먹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모든 기준이 돈이다. 어떤 분을 보면 ‘왜 그렇게 결정하실까?’ 생각 된다. 보면 결국에는 돈 욕심이다.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결국 보니까 자기 욕심이다.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나다. 옳지도 않은 나, 교만이다. 성공이다. 결국에는 가치 없고 수준 낮은 것들이다. 이것을 캐트러야 한다. 복지 현장을 보니까 그 안에서 안 맞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방을 바꿔주면 난리가 난다. 서로 안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 바꾸고 2개월 정도 지나면 다 적응 잘한다. 여러분도 그렇다. 부서에 새롭게 들어가면 못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 잘한다. 1년 지나서 또 바꾸려고 하면 안 바꾸겠다고 난리법석이다. 이 틀을 못 깨는 것이다. 교회에서 어느 부서 맡으라고 하면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중에 다 은혜가 된다. 선교현장에 가면 너무 힘들다. 전혀 음악을 못하는데 선교사님이 ‘지휘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지휘해라.’ 하신 것이다. 악기 다룰 줄도 모르고 음악을 할 줄도 모른다. 그런데 그냥 세모, 네모만 그리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웃음) 일주일 공부하니까 몇 년 동안 잘하고 있다고 한다. 도전하고 항상 바꾸기를 바란다. 그 뒤에 새로운 것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후반기는 새롭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틀을 깨기를 바란다. 울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채창조하기를 바란다.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된다. 교역자들도 부서 바꾸라고 하면 힘들어서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누구는 바꾸려고 한다.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된다.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도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목회하지 않겠는가. 하면 나중에 다 유익하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못 깨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냥 깨면 안 된다. 틀이 있어야 한다.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스템을 바꾸려면 집중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면 된다. 나중에는 많은 것을 응답 받게 된다. 앞으로 더 역동적인 시스템이 되려면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된다.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거기 안에 나를 맞추면, 몇만 명이 그 틀,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인터넷에 접속만 해도 많은 것을 얻지 않은가. 절대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복음화할 놀라운 시스템이 안에 있다. 일산 컨텍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집중하는 시스템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몇 십 만원씩 내고 바보, 멍청이여서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절대적인 시스템, 다른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주일에 바벨런데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류목사님께서는 ‘주일’이라는 말을 싫다고 하신다. 일요일만 주일이냐며, 월요일은 주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신다.(웃음) 우리는 월요일에 다락방하고 화요일에 지교회하고 수요일에 미션홀한다. 이제는 모든 날이 주일이다. 앞으로 월요일이라고 말할 것이다.(웃음) 이 틀도 바뀌어야 한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세차 할 때 그 차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 나왔을 때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힘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힘을 얻는다. 그래서 교회를 나섰을 때 진정한 예배이며 여러분의 헌정임을 믿기를 바란다. 거기서 빛이 되고 거기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이 직업소명설이라고 이야기했다. 성직자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렇게 누리기를 바란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는 세리가 직업이었다.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썼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전도의 복음으로 마태복음을 쓴 것이다.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온다.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쪽 이름이 나온다. 공부를 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조상인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 명단을 읽으면서 깨지는 것이다. ‘유대 땅 베헤레현에서 태어나고 나사로 동네에서 나는 평범한 마리아, 요셉인 것 같지만 저 조상을 바라.’ 요셉의 조상을 보니까 중요한 인물이 다 있는 것이다. 우리로 따지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도 있는 것이다. 계속 중요한 인물이 조상인 것이다. 안 놀랄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는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세 전에 예정하시서 그 땅, 그 날, 그 시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맞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야구나. 믿어야겠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틀, 자기의 성공, 자기 자리, 이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기적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완악한 인간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이 응답, 저 응답을 줘도 ‘우연히 됐겠지. 내 능력으로 됐겠지. 내가 노력해서 됐겠지. 어찌다 됐겠지.’ 한다. 불쌍한 사람이다. 어떤 분은 고난과 어려움, 실패,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내가 교만하니까 기도하라고 이런 것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해.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해.’하는 사람도 있다. 마태는 세리였다. 교만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나면,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에게 돈을 걷어서 절반은 자기가 착복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마태는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낮에 보니까 병자를 고친다. 유대인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것이다. 유대인이라면 평범한 사람, 아무든 성경말씀을 잘 알고 있다. 마태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내 것이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둥병자를 고쳤다든 소식을 들은 것이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왜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랐을까? 자기 인생에서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답이 필요했던 것이다. 양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가. 류 목사님도 말씀하셨다. 정말로 처절하게 절망하면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 여러분에게 처절하게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축복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고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나에게 힘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처절한 문제를 주신 것이다. 렘넌트들은 당하지 말고 배우고 깨닫기를 바란다. 경찰이 살인해보고 도둑질 해보아야 그 문제들을 알겠는가. 배우고 안 것이다. 진짜 그런 경험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깨닫지 못한다. 가장 좋은 치유, 깨달음이 무엇이라면, 강대상에서 말씀 듣고 미리 예방하고, 미리 성공하고, 미리 방향 맞추고, 틀을 깨기 바란다. 복음의 틀이 바뀌기를 바란다. 이 응답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이 마태였다. 자기의 모든 틀을 깨버렸다. 깨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자기의 돈과 명예로 평화롭게 육적으로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다 버리고 양심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치를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한 순간에도,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기 바란다. 당장 오늘부터 대역사가 일어난다. 한 번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보라. 단 10초만 주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보라. 한기총에서 류 목사님이 전도특별상을 받았다. 목회자가 600명이 졸업하는데 양심껏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한다. '많은 목회자가 졸업하는데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 하나를 했다. '정말 오직 예수, 진도만 해라. 복음만 전해라.' 질문 하나를 바로 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사랑교회에 세워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양심껏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오늘부터 대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어렵지 않다. 마태의 응답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을 믿는다.

1.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은 무엇일까?

(1) 당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귀는 열려있지만 들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 와보니까 아니라고 한다. 교회는 세상 윤리와 도덕과는 기준이 다르다. 제가 복지현장에 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다. 훌륭한 직원들 보면 80~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초등학교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교회학교 하다가 국립학교가 된 것이다.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독교, 신학과 교회의 음악을 가르치다가 세워진 것이다. 그 근본을 모르고 함부로 교회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영향을 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곳곳에 등불을 켜던 기도하셨던 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은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틀을 이야기하셨다. 마태복음 5장 22절 중간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사람들은 항상 남을 미워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한다. 기준이 다르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다 버려버리고 겉보기 같은 율법만 붙잡고, 그 틀을 깨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받을 수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2)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사상의 틀에 갇혀 있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방어자들이 많지 않은가. 선교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어두고, 율법주의적인 것만 붙잡고 있었다. 또한 선민의식에 빠져있었다.

(3) 그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아닌가보다.'한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 때입니까?' 하는 것이다. 그 때까지도 정치적인 왕,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4) 그들은 복에 대한 기준도 틀렸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10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이 성공인 줄 알았다.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아는 후배가 있는데 요새 뭐 하나고 물었더니 사기치고 있다고 한다. 추상복합상가를 산 것처럼 임대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서는 재분양한다고 한다. 그런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너나 하지 말아라." 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다 한다. 이 세상에서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간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말씀과 전혀 맞지 않다. 그러나 같았던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찢었던 것이다. '저 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저 분을 따라야겠구나.'

2.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적인 새 틀은 무엇인가.

(1)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임마누엘 그리스도인 줄 믿길 바란다. 이 복음은 항상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깨달으시길 바란다. 선지자를 잘못 알고 있다. 예레미야를 민족주의자로 생각하고 있다.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본질은 놓치고 겉보기만 알았던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믿으시길 바란다. 그 안의 모든 의미를 묵상하고, 깨닫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2) 천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었다.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천국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한다. 그러한 진도제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는다. 집중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씨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한다. 교회의 50억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축원한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하고 기도해야 한다. 아름답게 교회 성전을 짓지 않았는가. 한 사람만 좋은 신앙을 가지면 된다. 기도를 크게 해라. 하나님이 응답 줘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때가 전 세계를 도와줄 수 있다. 지금 전 세계를 세계복음화 할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번에 바누아투에서 사람을 초청하는데, 2-3억이 든다. 큰돈이 아니다. 23개국에서 대통령, 지도자들이 오는데, 진도하기에 얼마나 큰 기회인가. '그 돈을 내가 내겠습니다.'하는 중직자가 나와야 하지 않았는가. 후대들, 중직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란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런데 나중에 새들이 앓을 만큼 커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작은 복음, 작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새들이 앓을 정도로,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나라가 크게 될 것을 믿는다.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된 것이다. 수천 배, 수만 배가 된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모든 것을 팔고 그 땅을 샀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진도의 가치인 것이다.

(3) 사도 마태는 종말론에 대한 바른 기준을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이단들은 14만 4천명이 되면 천국이 임한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왔다고 말한다.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모른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 되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줄 믿길 바란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기를 바란다.

결론이다. 지금도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우리들의 CVDIP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언약과 다락방운동이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전하는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복음이다. 이 복음만이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다.
2. 비전과 팀사역이다. 오직의 언약을 가진 절대제자들이 팀이 되고 원니스가 되었을 때, 기업도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팀이 되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의 팀이 되면 237개 나라의 절대적인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란다.
3. 꿈과 미션홀이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꿈은 나 자신과 모든 가족이 절대제자의 응답을 받고 우리 집이 미션홀 제자를 키우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4. 이미지와 전문교회이다. 복음과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다가 결국은 나의 직장과 전문성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제 3의 RUTC운동을 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최고의 절대목표이다.
5. 실천과 지교회이다. 결국 우리들이 남겨야 할 최고의 작품은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를 남기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다.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교회당이 되었다. 북한의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진도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전도캠프와 집중의 훈련 속에 참여하고 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사도 마태가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 후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저희를 세우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 우리의 낮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틀을 깨어버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죄인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뉘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이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개인과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진도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